제주대학교 특강 내용 발췌
2004.6.11 미술관 시청각 강의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대학조형연구센터의 역할

김영호(중앙대교수, 미술사가)

Ⅰ. 국제자유도시와 예술문화

1. 머리말

정부는 최근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 1.26)을 공포하였고 뒤이어 이 사업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밑그림이 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3. 2.17)을 확정 고시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금년 상반기에 제주도는 제주지역 문화예술의 자율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2004. 1.29)을 수립하였다.

도내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완성된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6조에 명시된 '향토문화의 진흥'에 수립 근거를 두고 있어 명칭에 논란이 있었다. 소위 향토문화라는 단어가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치우친, 이른바 지역주의와 과거지향적 의미가 강조되는 명칭이 아니냐는 지적이 연구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전반에 걸친 세부적 방안들로 채워져 있어 명실공히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많은 연구와 수정보완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된 이 중장기계획은 제주도의 문화예술 분야의 계획과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계획의 시간적 범위인 2011년까지 제주도내 문화예술 시설의 확충과 정비, 단체의 지원, 국제미술행사등의 사업을 수립하는 자료로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도내의 문화사업을 전개하는 단체임을 표방하는 대학연구소는 이 종합계획의 기본 내용과 중점사업에 대해서 나름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의 중점사업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의 이념과 기본방향은 제주의 정체성 구현, 전통과 현대의 조화, 지역공동체의 결속, 대자연과의 조화, 세계화의 지향 등의 5개 항목을 내세우고 있으며, 부문별 진흥계획을 분석해 보면 모두 7개의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을 명시하는 이 장에서는 제주도 문화권역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영상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 미술관, 박물관, 대중음악전용장 등의 시설물을 갖출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현재 불합리한 문화예술행정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한편 문화예술 행정과 실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는 달리 제주도의 경우

문화예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도내 문화예술관련 학과가 신설된 대학과 협약을 맺어 특수과정을 신설하고 문화예술경영,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전시기획자, 공연연출가 등의 전문가를 배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전승 개발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다루고 있는 이 항목에서는 말 그대로 도내에 흩어진 고인돌과 패총 그리고 집단 주거지 등의 유형문화재 및 기념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천연기념물과 자연유산을 보존하자는 내용이 골조가 되어있으며 아울러 제주민요, 굿, 신화, 전설 등의 무형문화재와 민속, 방언 등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방안이 소개되고 있다.

3) 향토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향토예술단체의 지원을 다루는 이 장에서는 특히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육성방안이 눈길을 끄는데 현재 2003년까지 73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2013년까지 500억원으로 올리고 제주도의 대표적 문화정책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상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확보함으로서 탈 관료적 재단으로 거듭나야 하는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문예진흥기금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강구하여 나눠주기식 지원을 배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선호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설문조사(50.3%)의 결과를 내놓았다. 즉 소액다건의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사업의 내용과 질 그리고 규모와 파급효과 등을 따져서 집중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주도내 문화예술단체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대목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한된 지원기금의 액수와 회수(3년에 2회 지원)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주도 일반회계의 문화예술관리비를 상당액 인상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금 및 수혜의 폭을 확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눈길에 드는 것은 기업메세나의 활성화인데 기업이 문화예술행사 지원 관심을 갖도록 동기유발을 하는 일에 지역정부가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제주 메세나인 대상」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4)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

제주도의 문화예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공연과 조형예술 활동을 위한 새로운 시설의 건립과 기존 시설의 개보수 그리고 '문화의 집' 과 같은 기존 문화시설의 재활용이 그것이다. 기존 시설의 건립과 기존 시설의 정비 대상으로는 1998년도에 개관한 '제주도문예회관' 의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의 노후가 지적되었는데 최근 전시실은 재보수가 완료되었고 제2전시관의 확충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미술관으로는 서귀포시 기당미술관(1987), 이중섭미술관(2002), 김정문화관(2003)이 언급되고 있으나 그 운영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대안은 도내에 다양으로 세워진 문화의 집을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일 것이다. 제주에는 현재 일도2동 문화의 집을 포함해 18개소의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의 독립성과 재원 그리고 사업을 전개할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나 문화관광부의 정책적 연구를 통해 법제화 될 수 있다면 이는 앞으로 제주도가 예술문화의 지방확산을 위한 기초 단체로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제주문화의 메카로 운영될 수 있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발전방안과 제주종합문화예술타운 조성 등이 제안되었으며 미술분야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립미술관의 경우 이미 연구용역이 끝난 상태이고 도 민간단체의 건립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차원의 기구가 마련될 계획이다. 그 규모는 대지면적 10,000평과 건물연면적 3,000평 그리고 총 공사비가 370억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기타 공공미술과 대형건축물 미관개선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공공건축의 미술장식물 심의제도의 개선방안이 주목을 끈다.

5)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을 고부가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인식하고 소비와 유통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말한다. 제주도내의 관광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지역의 관광정책을 위해 필수적으로 연구해야 될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문화산업의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 대형화, 집중과, 독점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각 지역은 문화산업을 21세기의 주도적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혁명적 컨텐츠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의 동향은 주로 영화, 방송, 영상, 게임, 음악, 에니메이션, 광고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에 끌려가는 형태의 산업화는 지양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타 지역에서 대형 자본을 투자하는 분야와 경쟁할 당위성이 재정적으로나 인직 자원의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의 문화산업은 전통적으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상품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 시대적 추이에 맞추어 내도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걸맞는 첨단 미디어와 소통 체계를 활용하되 그 컨텐츠는 제주지역만이 독점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제주의 유무형문화재를 포함해 화산, 신화 및 전설, 생태, 민속, 예술 등의 선도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첨단 문화산업과 제주의 자연과 전통문화를 연계시키는 계획들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6)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복지기관 구축

이상에서 언급된 제주의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은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자연과 문화를 이용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에서 발견된다. 바다에 의해 고립된 영토, 환경에 대응하여 세운 역사와 민속, 이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자주와 자립정신 등이 제주가 지닌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시켜온 보배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제주학연구의 활성화는 대학 연구기관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가령 제주대학교의 대학원에 제주학 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제주학 관련 연구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이 선결과제로 제시되고 있음은 주목할 대목이다.

7) 제주문화예술의 세계화와 교류

연구보고서가 명시하고 있는 부문별 진흥계획의 마지막 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 세계화와 교류에 관련된 것이다. 문자 그대로 세계화를 위해서는 제주도의 문화예술행정과 정책의 국제적 관례를 연구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21세기 문화산업은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출판, 잡지, 음반, 멀티미디어 등의 오락과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들어 오페라, 연극, 무용, 미술품 등과 같이 문화적 성질이 확실한 장르로 고급 문화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외의 국제영화제, 연극제, 음악제, 째즈페스티벌과 각종 비엔날레와 미술품 견본시장 등이 그 사례이다.

그러나 현대 국제사회에서 주목되는 것은 특정지역의 고유한 생태, 역사, 신화, 언어, 민속 등에 기초한 재원을 상품화 시키는 행사들이다. 예를 들어 2002년 프랑스의 니스카니발은 총 385종의 언론사들이 취재경쟁을 벌였고 프랑스의 텔레비전을 비롯한 100여종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축제이다. 17일간의 카니발 기간동안 총 1,200,000명의 관광객들이 니스를 찾았고 호텔 레스토랑 등을 포함한 전체 관광수입이 약 46억에 달하였다. 성공요인은 전통을 바탕으로 개발한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휴양도시가 지닌 지리적 특성 그리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축제연구가, 역사학가, 심리학자, 사회학자, 정신분석학자, 인류학자들이 참여하는 다각적 연구를 실행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니스의 성공은 유사한 해양문화화 휴양지 그리고 독특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지닌 제주도의 문화예술축제 연구에 타산지석으로 작용한다.

3. 투자계획과 문제의 대안

제주도가 제시하는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은 비교적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연구되어 있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계획의 면면을 보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취약성만큼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2년 제주도의 재정은 중앙정부 의존도가 64%에 이를 정도로 취약한 현실에 비추어 보자면 제주도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에서도 중앙지원이 확대되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도지사가 수립하였음에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사업이므로 이 계획에 포함된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은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을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관광진흥 및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복권을 발행 할 수 있어 1995년부터 실행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다. 또한 2002년 12월부터는 로또복권 판매에도 참여하여 수입을 거두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가 배당받는 수입금의 일부를 문화예술 분야에 배정받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투자계획 중 문화예술부문 투자계획은 총 사천억원이 넘는 406,459,000,000원으로 잡혀있다. 이는 항몽유적지 정비, 문화재보수정비, 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등 41건의 사업을 위한 규모이며 그 중 3분에 2에 해당하는 259,177,000,000원이 국비로 되어 있고 3분에 1에 해당하는 137,502,000,000원이 지방비이며 기타가 9,78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투자비로 쓰여질지 의문이지만 투자계획이 실행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거대사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막대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연구기관이 필요성은 당연히 제기될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내의 문화예술재단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II. 국제자유도시와 대학

1. 지식사회와 대학연구소의 기능

전통적으로 대학의 기능은 교육과 연구라는 두개의 축 위에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기능은 이 두개의 기능 이외에도 실천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른바 산학협동체제와 대외협력활동 또는 사회봉사활동이 대학이 해야 할 책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이다. 이러한 최근의 정세에 따라 대학들은 정통부, 산자부, 교육부 그리고 문광부 등의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수주하고, 문예진흥원, 학술진흥재단, 문화컨텐츠진흥원 등의 기관에서도 대학 연구소와 연계한 산학협동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지원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가령 정부가 추진하는 BK사업이나 IT, BT, CT 분야의 사업들에 배정된 대형자금들이 대학으로 흐르고 대학은 경쟁적으로 이를 선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대학은 과거의 상아탑으로서 남아있기를 거부하고 현대사회와 보조를 같이하며 지식을 산업화하고 마케팅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대학의 미래를 위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의 교수들은 대기업의 직원들과 다르지 않게 여겨지며, 대학 재단은 자금을 끌어오는 능력이 출중한 교수를 뽑는데 신경을 쓰고, 대학본부는 정부의 당근정책을 추종하여 신설학과를 선호하고 겸임교수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산학협동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교수의 업적평가는 외부 프로젝트의 수주실적을 기준으로 삼아 재단하고 재임용의 기준을 기업의 그것과 유사하게 조절함으로서 상호간에 경쟁심을 높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듯 최근의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라는 경계를 벗어나 현대 사회의 중심으로 깊숙이 내려와 자리 잡음으로서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이다.

대학이 현대사회의 중심부로 다시 부상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에는 공업경제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식과 문화의 산업화 시대'가 도

래했다는 전 지구적 진단과 사업추진에 따른 대학의 권력구조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공학에서 법학과 정치학과 무역학과 경제학에서 가정학과 식품가공학 그리고 예술에 이르는 대학사회의 구성원은 대학을 거대한 인적자원의 보고로 인식시키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학에서 쉽게 유입되는 미디어 혁신의 상황도 대학으로 하여금 실천적 학문의 타당성을 증대시키는 원인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은 기업화되고 이러한 산학협동체제의 활성화와 실천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소들이 증가하고 연구조직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 국제자유도시와 조형연구소의 역할

우리나라의 경우 조형예술의 영역에서 대학이 설립하고 있는 연구소는 대개 조형연구소 혹은 조형예술연구소 등으로 명명되어있다. 조형연구소도 대학이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동체제의 소용돌이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데 작금에 전개되는 연구소의 사업들은 대부분이 공공건물에 부차적으로 세워지는 조형물을 유치해 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내의 건축법에 명시된 소위 1%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건물에 대한 미술장식물의 설치의무와 관련해 조형연구소에서는 이를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지고 있고 또한 그것은 사실이다.

국제자유도시로 아시아의 눈동자가 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로터리 역할을 담당할 꿈을 키워가는 제주도의 경우에도 호텔과 공공건물 등이 계속해서 들어서게 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건축물에 적잖은 조형물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대학 연구소가 지역사회의 미관을 연구하고 집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잘못이라 여길 수 없다. 제주도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측면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자문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풍부한 대학 조형연구소가 도시미관을 높이는 일에 등한시 한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조형연구소가 공공조형물의 수주사업을 위한 전진기지로 비추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제주도와 같이 미술인구의 수가 열악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에 조형연구소가 대학의 교수들의 사리를 위한 기구로 쉽게 비추어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조형연구소는 제주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고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시켜 공동체의식을 높이며, 문화예술이 제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가 되는 분야임을 널리 알리는 소위 예술적 소명에 충실해야 하리라 본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정해짐에 따라 제주도의 문화적 지형도는 크게 변질되리라는 예상들이 적잖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다국적 기업의 도내에 세워지고 그에 따른 출입인구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종문화의 도내유입이 예상되며 문화적 혼성주의 또는 잡종문화의 현장으로 쇄락할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시설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적합한 시설이 바로 대학이며 대학의 조형연구소는 제주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사업들을 실행해야 함은 마땅한 일일 것이다.

문화예술을 통한 계층과 세대간의 갈등해소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제주의 경우 인구 55만(2002)에 미술인구 181(2003)(예총155/민예총 26)명의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4개의 법인단체와 32개의 일반단체로 나뉘어져 있으며, 크게는 신구세력과 보수개혁의 정치적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양립된 단체의 분위기는 소비적이고 중복되는 문화사업의 형태로 전개되면서 미술계가 굳어가고 있음을 본다. 최근의 상황은 이전과 달라졌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사회의 상황을 지역사회의 문화를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대학이 무심히 관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의 조형연구소는 이러한 구시대의 이분적 가치체계와 집단 이기주의를 해체시키는 노력을 통해 올바른 문화환경을 세우고, 예술을 통해 삶을 치열하게 성찰할 수 있는 토양을 가꾸는데 일조할 때다.

3. 대학조형연구소의 사업

현재「제주대학 조형연구센터 규정」에 명시된 사업은 대부분 조형물의 연구개발, 자문, 제작지원, 조형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술분야의 제한된 연구원으로 구성된 조형연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업무의 폭을 좁히고 특화 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국제자유도시 시대를 주도하는 대학연구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한 조형물 중심의 연구 제작 기능을 전개하기 위한 기본적 사업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부적 사업에 대한 연구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제주도내의 문화에술 행정과 실행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가령 문화예술경영, 이벤트기획, 전시기획, 공연연출 등의 전문가를 배출할 전공분야 혹은 학과개설에 대한 연구는 교육기관인 대학이 아니면 해결책이 없다. 인력의 양성은 곧 제주의 문화지형을 재편하기 위한 가장 근본이 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검토해 볼 사업으로 보인다.

2) 제주도의 문화적 시설의 신축 및 재정비 사업에 일조해야 하는 것도 전문적 재원을 지닌 대학이 할 일로 보인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립미술관의 설립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제 기능을 못하는「문화의 집」운영에 대한 연구지원 혹은 학술세미나의 개최가 그것이다.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이미 완성된 상태이고 도 민간단체의 건립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도차원의 위원회가 구성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제주대학 조형연구센터 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제주도내의 공공미술과 대형건축물 미관 개선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조형연구소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공공건축의 미술장식물을 위한 현재의 의무법제를 발전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과 심의 제도의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4) 제주도가 동북아의 관광거점도시로 정착하기 위한 문화적 사업으로서 제주의 유형문화재를 포함해 화산, 신화 및 전설, 생태, 민속, 예술 등의 선도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 연구가 필요하다. 즉 전통을 바탕으로 개발한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휴양도시가 지닌 지리적 특성 그리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축제연구가, 역사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정신분석학자, 인류학자들이 참여하는 다각적 연구를 실행하여 해양문화를 형성한 독특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지닌 제주도의 문화예술축제 연구에 대학연구소가 주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에필로그

세기가 바뀌면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징후를 우리는 도처에서 발견한다. 문화부 예산이 1%을 넘어섰으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책정한 예산들이 만만치 않다. 가령 문화수도를 선언한 광주의 경우 대통령 공약에 힘입어 1조원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투자계획을 마련하였고 기존의 광주시립미술관을 제쳐놓고 광주현대미술관 건립이 한창 진행중이다. 부산의 경우도 매년 비엔날레를 개최해 그 지역화단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대전의 시립미술관에 이어 전주에도 도립미술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제 문화사업은 도와 시를 넘어 군차원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가 아니면 안되는 것처럼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만 하더라도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이러한 문화생산의 과잉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말 그대로 지역문화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결속과 도민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각 지역의 대학들이 발벗고 나서야 할 때라 믿는다. 물론 대학의 기능은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고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이 이전과는 달라 실천적 학문의 장으로서 대학이 현장을 방관할 수 만은

없게 되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문화재단과는 다른 차별화된 활동을 전개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주도는 지방분권 시범도시로서 회의산업의 발전과 예술문화의 연구가 어느때 보다 요구되는 현실에서 금번 제주대학이 개소한 조형연구센터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실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